







# (시) 장군님의 뜻대로!

박 현 철

10월에도  
10월에도  
노도치는 천만의 가슴에  
돌격전에 나선 피끓는 이 가슴에  
신념의 맹세가 불탄다  
- 모든것을 장군님의 뜻대로!

동트는 아침  
들끓는 일터에서 새날을 맞을 때  
불타는 창조와 위훈으로  
헌함을 지낼 때  
이 하나의 생각으로 내 심장은 뛴다

한정생  
눈비에 야전복자락 마를새없이  
온 나라 방방곡곡 다 찾았으며  
불같은 헌신으로  
부장조국의 대로를 열여준 장군님  
오늘의 진군길에 함께 계시거니

길잡이  
혁명의 진리를 배워주며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그의 높은 뜻  
영원한 삶의 철리로 새겨안은 이 심장

오직 장군님 숭례로만 뛴다  
또 하나 벽찬 일감을 맡아안아도  
그이의 뜻으로 설계도를 펼쳐  
시련과 난관이 막아도  
그이의 가르치심 등대처럼 앞길 밝혀  
가는 길 천만리 두렵없거니

심장마다  
생명의 피줄기로 흘러드는 그의 사상  
삶의 신조로 새겨진 그의 유훈  
그것은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안고 살 혁명의 교과서

그대로만 하면  
불가능이 없고  
자속자속 지켜가면  
구름우연 참매날고 목란꽃이 이 강산에  
강국의 아름다운 리상이 꽃피어나

사나운 격랑이 밀려와도 오직 한길  
그이 가리키신 승리의 이정표를 따라  
폭풍이 불고 불바가 쏟아져도 변함없이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의 식대로!  
펼쳐가리라  
이 땅을 가꾸어  
그이 그려보신 푸른 산 푸른 들로  
새 공장과 거리를 하나 일떠세워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꽃피어나는  
최첨단공장 황홀한 새 거리로

장군님의 유훈관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선  
내 한생 끝까지 지켜가리라  
우리 당중앙과 생사를 같이하며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오, 승리의 축포성 터져오를  
10월의 경축광장에서  
금지높이 뗏뗏이 보여주리라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이 땅위에  
어머이의 념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꽃피우는가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안아오는가

10월의 광장으로 향한 이 진군길  
당헌 내가 설 자리는  
공격전의 첫자리  
이 한몸 그대로  
사용되는 최를 끓이는 밀밭이 되어  
날과 달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리라

나를 지켜본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기마다  
당의 부름을 안고  
모진 광풍 남편히 헤치며  
협산준령 앞장에서 넘으며  
승리의 돌과구를 열여온 수백만 당원  
들이

공격전의 불길이 되고 기발이 되리라  
불타는 바위벽에  
화염을 감아 결사전에 나서던  
화신의 당원들처럼  
맨손으로 수류탄을 쥐고 양수기를 만  
들던

락원의 당원들 백별불굴의 그 정신으로  
어깨걸고 나가리라  
결사관철로 당중앙을 옹위하  
마시령의 군인당원들과 나란히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바다의 정복자  
《단풍》의 당원들과 보복을 맞췄

당의 부름 당의 믿음에  
피와 땀을 아끼라  
물불을 가리라  
거세한 열풍을 내뿜는 나의 강철로앞에서  
당기를 우러러 다진 선서 지켜가리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치리라

오, 당이여  
장군님 뜻대로 그대 펼친  
휘황한 번영의 길위에  
부장조국의 강철기둥을 억척같이 세우며  
당원 이아들은  
타면지는 불길이 되리라  
나뭇기는 기발이 되리라

# (시) 불길이 되어 기발이 되어

전 승 일

붉은 당원증을  
심장오로 간직한 이 가슴에  
종종 울린다  
어머니다운 불같은 호소가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할아버님인 리보익이신 시의 묘, 어머니님인 강반석선생님의 묘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추모하였다.

- 당기앞에 다진 맹세 지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로동당원의 혁명적기개를 펼  
치라!

이러 만경대혁명사적관에 들  
어선 참가자들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  
기며 전시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  
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경건한 마음으로 고향집을 찾  
은 그들은 추녀났은 초가집에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에 대한

성스러운 이 부름  
나의 강철로여  
네 로심에 이끌거리는 쇠물처럼  
이 심장의 피를 떨떨 끓게 하누나

그들은 전승기  
념략 《승리》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위대한 대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  
를 표기하였다.

기념관에 전시된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보면서  
그들은 반세기  
투쟁사에 쌓아  
올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기 새겨안았으며

# (시) 위대한 당의 부름앞에

김 남 호

기어이 완공의 언제를 떠올리리  
내 심장의 뉘뜰은 고동  
발진기타린의 동음으로 울리리  
락원의 창가로 뻗어간  
은빛순전선의 진류로 흐르리

천년만년 무신히 흐르던  
수백리 청천강을 휘잡은  
역세인 구리밭밭에  
새로이 뻗어간  
격전장에서 더욱 큰 기적을 부른다

잠을 면제한 자동차들은  
사연깊은 북방의 명길을 뚫으며  
불을 토하듯 거센 승결 내뿜는다  
사나운 눈보라를 위훈의 불보라로 태우며  
용검의 화광은 총천한다

가속속 깊은 곳에서  
불꽃처럼 뿜어 솟는 총정과 의리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리  
영광이여라 그 길에서  
내 맘이 아닌 목숨을 바친대도

장군님 그 품에서  
참다운 생을 받은 이 나라의 아들딸들  
당의 위업에 충직한 청년강용사들은  
꿈에도 다른 삶을 원치 않거니

오, 경축의 축포 터져오를 10월의 그날  
금지높이 헤쳐가리라  
청천강안에 울려 퍼질  
거세한 발진기의 동음으로  
아름다운 행보의 불아경으로  
장군님의 유훈을 이 땅에 꽃피웠다고!



##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3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할아버님인 리보익이신 시의 묘, 어머니님인 강반석선생님의 묘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추모하였다.

이러 만경대혁명사적관에 들  
어선 참가자들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  
기며 전시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  
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경건한 마음으로 고향집을 찾  
은 그들은 추녀났은 초가집에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에 대한

## 4월 상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 강냉이농사대책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높  
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  
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야 합니다.》

4월 상순에 우리 나라는 남쪽  
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  
의 영향을 받아 기온은 평년보  
다 약간 높고 강수량은 서해안  
지방에서 평년정도, 그밖의 지방  
에서 평년보다 약간 적을것으로  
예견된다. 그리고 북쪽의 찬 공  
기의 영향을 받을 때 약한 추위  
현상이 몇차례 나타날것으로 보  
고있다.

4월 상순 평균기온은 전반적  
지방에서 3.7~9.3℃로서 서해안  
지방에서 평년보다 1~2mm 많고  
북부내륙지방, 동해안지방에서  
평년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적을것으로 보고있다. 서해안지  
방, 북부내륙지방에서는 지난해  
에 비하여 2~1.4mm정도 많고  
강원도에서 6mm정도 적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지난해정도일  
것으로 보고있다.

해빙철은 3월 하순에 전반적  
지방에서 평균 63%로서 평년  
보다 높을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이른코포의 모판관리와 여러가  
지 모종류들의 씨뿌리기준비를  
잡는것과 함께 물원천을 확보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중  
심을 두어야 한다.  
이른코포의 모판관리를 잘하  
여야 한다. 낮에는 나뭇을 벗기고  
밤에는 쇠뚜껑을 방판으로 모판  
온도를 높여주며 모판이 마르면  
제때에 물을 주어 습도를 보장  
하여야 한다.

영양단지를 영양양상도, 영양  
알도, 속성모와 같은 모종류들  
의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할수 있도록 씨앗처리와 모판준  
비를 잘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해빙철을 바쁘게 모판이 마르면  
제때에 물을 주어 습도를 보장  
하여야 한다.

올해 영양단지모도면적에  
많은 조건에서 영양단지모재의  
특성에 맞게 모판관리선정과  
모판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논벼농사에서는 땅다루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여 토양물기  
를 최대한 유지하며 모를 튼튼  
하게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물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을 계속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강변이농사에서는 땅다루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여 토양물기  
를 최대한 유지하며 모를 튼튼  
하게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강냉이포전들에서 빈포기를  
없고 평당 포기수를 보장하자  
면 적과재배하는 종자의 씨비율  
과 영양단지의 모도가 잘리  
도록 땅다루기를 질적으로 하여  
토양물기를 보존하여야 한다.  
땅다루기를 3월말-4월초  
까지 끝내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3월 9일에 땅다루기를 한 경우  
4월 10일에 땅다루기를 진행  
한데 비하여 토양물기함량이  
5.6%나 더 높아 썩어나온 풀이  
10%, 강냉이수출도 107%로  
높아진다.

강냉이종자준비와 영양단지  
모판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우선 종자의 해빙이기를 잘  
하여 씨앗의 활성을 높이며 종자  
를 크기별로 골라 총합가 생기기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크기별로 골라낸 종자를 철저히  
피복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강냉이영양단지의 질적으로  
만들자면 흙과 부식토를 3:7로  
섞은 모판재에 질소비료를  
모판당 평당 투입량 300~400g  
(해발고도가 높은 지대, 추운 지대  
들에서는 600~700g)를 넣  
어야 한다. 모판에 내용비료를  
넣어 모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씨앗 나을 때까지 모판온도를  
20~25℃로, 토양습도를 70~  
80%로 보장하고 씨이 나온  
다음에는 모판온도가 30℃이  
상 오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남해안지역을 비롯하여 일찍  
씨를 뿌리는 모판에서는 나뭇  
씨우기와 박판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참가하기 위해 정영원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이 28일 련차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 레바논과 수리아에 가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 출발

레바논에서 진행되는 세계  
민주청년동맹 총리사회의 회와  
엘 살바도르에서 진행  
되는 국제민주녀성동맹 회  
의들에 참가하고 메히코를  
방문하는 체촌희 녀성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

로 하는 조선민주녀성동맹  
대표단이 28일 비행기로  
출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과 수명을 위하여, 조국의 자  
유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서온 인민  
군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체득하였다.

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총대  
력사를 깊이 전하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에서 자위적국방공업  
발전의 자랑한 행로를 증시하는  
자료들과 무기, 전투기술기계를  
돌아보며 감동적인 국방공업  
의 창설과 강화발전에서 쌓으신  
백두산건설세위인들 불멸의  
선군명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참가자들은 선군시대 기념비  
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  
국제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맞  
는 경기장으로 개건된 5월1일  
경기장, 청춘거리체육관과 기관  
차체육관 등을 참관하였다.

훌륭하게 꾸려진 체육시설들  
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우리 당의  
체육중시정책이 얼마나 경이로  
진전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저한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를 존엄  
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  
올리는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  
현하는데 한몸 다 바치며 금메  
달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갈 불타는 열의에  
일취일승하였다.

제대되어 평안에 배낭을 풀어  
놓은 때로부터 40여년을 동발  
공으로 일하는 그를 아는 사람  
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세우는 하  
나나라의 동발이 그대로 조국을



새 학년도를 맞으며 교수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평천구역 봉학고급중학교에서-

## 40여년을 한직종에서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누가 보진않고  
성실한 땀을 바쳐  
가진 것은 사람됨에  
신중함 동발공  
신중함 동발공  
신중함 동발공

제대되어 평안에 배낭을 풀어  
놓은 때로부터 40여년을 동발  
공으로 일하는 그를 아는 사람  
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세우는 하  
나나라의 동발이 그대로 조국을

에 살고있는 학생들의 많은 졸업  
학생들이 최전선전대와 의진  
심, 산골마을학교로 만원하고  
있다.  
리수덕원산교원대학 교육  
2학부 3학년 학생 김원철,  
리향, 교육 1학부 3학년 학생  
신중환과 원산사범대학 어문학부  
4학년 학생 류은아를 비롯한  
같은 대학졸업학생 5명은  
지난 2월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가 복귀작업을 끝낸 사실, 1호  
과제대보수작업을 한주일 앞  
당겨 끝내는 데서 제기되는 동발  
작업을 원만히 보장한 사실, 10  
여명의 기능공들을 훌륭히 키  
워낸것을 비롯하여 수십년간 맡은  
초소에서 누가 보진않고 묵묵히  
일하였는 사실을 말하건대 끝  
없다.  
로동통신원 리 상 두

## 당과 숨결을 같이하는 청년대학생들의 참모습

구조를 파고드는 심장마다에 받아  
안은 이 뜻 학부의 졸업학생  
51명이 발전소건설장으로 탄원  
하였다.  
평성수의출산대학 졸업학생  
들이 출판학부 5학년 송철민,  
출산학부 5학년 오성욱, 리충영,  
오시학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세포지구 축산  
기지건설을 다그치기》 축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  
키기》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과  
세포지구 대규모축산기지건설  
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  
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

조직한 대학, 전문학교졸업  
생들이 최전선전대와 의진  
심, 산골마을학교로 만원하고  
있다.  
리수덕원산교원대학 교육  
2학부 3학년 학생 김원철,  
리향, 교육 1학부 3학년 학생  
신중환과 원산사범대학 어문학부  
4학년 학생 류은아를 비롯한  
같은 대학졸업학생 5명은  
지난 2월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가 복귀작업을 끝낸 사실, 1호  
과제대보수작업을 한주일 앞  
당겨 끝내는 데서 제기되는 동발  
작업을 원만히 보장한 사실, 10  
여명의 기능공들을 훌륭히 키  
워낸것을 비롯하여 수십년간 맡은  
초소에서 누가 보진않고 묵묵히  
일하였는 사실을 말하건대 끝  
없다.  
로동통신원 리 상 두

## 군인정신이면 못낼 일이 없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에서 들어오던 수출용고무장갑  
을 끝내내 공장자리의 힘으로  
생산한데 투쟁이야기는 이 공장  
영예군인들의 남다른 사상정신  
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보전부문에 필요한 수출용고  
무장갑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  
고 있는 실례는 내 나라,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던 여제남영조직원들의 량심  
과 자존심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부에서 유를 창조하던 군인본  
래, 군인이기이면 못낼일이 없다.  
공정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수출용고무장갑을 자  
체로 생산하고있으며 힘있게 생  
산하면서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사  
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그후 어렵고 힘든 고비들이 수  
없이 많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보전성 일군들의 적  
극적인 방조속에 생산성상화를  
기어이 실현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제품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기술혁신운동의 불길같은 열의  
를 계속해나갔으며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생산실천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기술능수준  
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그러나 제품의 질을 보장할  
높이에서 보장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제품의 질문제의 열의 심하게  
제기되고 다시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영예군인의 량심이 그것을 허용  
하지 않았다. 당장 제품의 질을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없었지만  
무조건 우리의 힘과 기술로 해  
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가 모두의  
심장을 더욱 불타게 하였다.  
제품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는 과정에 건조공  
과 제품생산공정에 문제가 있  
는것을 찾아내수 있었다.  
김희정, 리기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건조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것과 함께 제품생산의 기술공정  
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결과 제품의 질은 이전시기에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예군인들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야 한다 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삶의 좌우명  
으로 삼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한길을 꾸준히 이어나  
가야 합니다.》  
합동영예군인의료기공장은  
명칭 그대로 영예군인들이 일  
하는 공장이다.  
병사시절의 그 위훈으로도  
나라의 혜택과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생을 보내도 응당한 일  
이란 오히려 이들은 누구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최고생  
년도수준을 통과하고있다.  
공정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수출용고무장갑을 자  
체로 생산하고있으며 힘있게 생  
산하면서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사  
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영예군인의 량심이 그것을 허용  
하지 않았다. 당장 제품의 질을  
보장할수 있는 담보가 없었지만  
무조건 우리의 힘과 기술로 해  
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가 모두의  
심장을 더욱 불타게 하였다.  
제품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는 과정에 건조공  
과 제품생산공정에 문제가 있  
는것을 찾아내수 있었다.  
김희정, 리기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건조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것과 함께 제품생산의 기술공정  
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결과 제품의 질은 이전시기에

비하여 훨씬 개선되어 수입에  
의존하던 수출용고무장갑을 자  
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고대하여 공장에서 해마다 최고  
생산도수준을 연이여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비결을 묻는 우리제국 지배인  
위수룡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사회주의보전제도의 혜  
택을 제일 많이 받고있는 사람  
들은 우리 영예군인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예군인들  
을 보살피주고 내세워주는  
것을 위해 조국에 조금이나마 보  
탤을 주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으나  
마 기여하려는 소중찬 마음, 자  
기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내려가는 영예군인들의 불같은  
열의가 인아는 놀라운 혁신성과  
였다.  
주 령 북



#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현행법으로 제포된 피뢰정보원 간첩들의 기자회견소식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해치지 위한 국악무도한 행위를 거침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영성을 흐려

놓고 반공화국고립압살기운을 고취하기 위한 《인권》모략 등 각종 음모책동에 미처나지 못한 피뢰정보원들의 죄행은 주권국가들을 진북하는데 이골이 난 국가정치체로의 원흉, 반인권범죄의 양초가 닥쳐온 미국과 남조선피뢰배당이라는것을 다시금 날날이 고발해주고있다.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미국과 남조선

피뢰배당의 반공화국모략행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어찌하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존엄없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는 적대세력의 모략책동이 사상 최악의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변역

거부감과 《북북미》야망에 사로잡혀 정탐모략과 음모책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려는 미국과 피뢰배당의 어리석은 망동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입심단결, 현연일체를 이룬 선군조선의 위력에 의해 총지박산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최철순  
본사기자 리효진

— **애매구경에 거대한 정동** —

### 대결광신자들의 가련한 운명

우리 들켜대원들은 피뢰정탐배들의 물결을 보면서 한결같이 반공화국모략에 이골이 난 미국과 피뢰배당을 진을 저해하고 인민생활에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어찌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당은 앞에서는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반공화국베라살포란등을 부리고 뒤에서는 나팔하고 쏘스러운 방법으로 남조선 불온한 자료들을

남,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오 염시킴수도 변질시킴수도 없다.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말이 있다.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로 미국과 피뢰배당을 진을 저해하고 인민생활에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어찌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원수놈들은 오산하고있다.

온갖 악선전과 잡랑물로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소주된 불온한 사상과 신

##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국가정치체로의 원흉

미국과 피뢰적피뢰당이 민족의 최고존엄을 감히 어찌하려고 미처나지 못한 특대형정치체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다.

지난 26일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된 국내외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피뢰정보원의 배후조종과 지령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수법으로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에 매여달린 피뢰간첩들의 범죄행위가 그들 자신의 진술과 부인할수 없는 증인진술, 증거자료들에 의해 명명백백히 입증되었다.

우리는 이미 부나비처럼 날뛰는 피뢰적피뢰당에 대한 민족의 존엄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어떻게 간직되어있는가를 똑똑히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허황한 《북북미》야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최고존엄에 함부로 도전하는 미국과 피뢰들의 망동은 한계를 넘어섰다.

자 미국은 우리의 첫째가는 정대상이다. 미국이 해마다 국가예산에서 특별항목을 설정하고 반미경향을 가진 다른 나라의 수반들에 대한 암살음모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세계도처에서 체제혁명작전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미국무성은 우리 공화국의 《내부고관》을 위해서만도 해마다 1 000만 US\$의 자금이 지출된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이런데 폭로된 특대형정치체로음모는 최근년간 미국과 피뢰배당이 찍어낸 떠돌고있는 《나의 최후의 모습》이 당신들의 최후의 모습이다.》 《피뢰정탐배가 접근한바와 같이 민족의 최고존엄을 감히 어찌하려고 테로음모의 조직과 실행에 나서는자들은 모조리 배두산산태의 가장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고 철저한 징벌을 받고 버디하고 추락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그 실행에 돈을 아끼지 않았으며 최신과학기술이 동원된 테로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외국방문길에 계시는 최고수뇌부의 안녕과 건강을 간절히 바라며 태양의 자애로운 모습을 절절한 그리움속에 매일매일 생각어났고 때를 쫓지 않고 하늘의 해를 때 쫓듯 지평선과 미제와 피뢰정보원 악당들은 특대형정치체로를 위한 총계를 꾸미며 감히 더러운 손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우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들은 우리 운명의 기둥에 서슴없이 칼질을 하려 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족의 존엄을 짓밟고, 시대의 무자비한 철추를 받아 마땅할 천하단고의 대역죄이다. 우리가 이번에 폭로된 미국과 피뢰들의 정치체로음모를 천추만대를 두고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몇년간 미국과 피뢰적피뢰당이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성스러운 대기를 오염시키고 날뛰는 모서리치는 만행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허황한 망상에 빠져 있던 리명박적피뢰당이 그 무슨 《특수공작조》의 침투로 우리 공화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저들의 더러운 목적을 실현할 흉심밑에 벗어난 《동가모》사건이다. 《동가모》는 파

괴안테와 테로 등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내부고관음모와 《세계전복》활동을 기본목적으로 피뢰들이 2010년에 조직한 범죄적인 테로조직이다. 특대형테로음모를 꾸민 피뢰적무리들은 그 실행 날짜도 2012년 2월과 4월의 민족최대의 명절들로 정해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자리잡은 불변의 신념을 흔들어보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테로임무를 받은 가중스레 은 인간쓰레기들은 적법제포되었거나 인감조공을 받고 파란 뒤쳐졌다.

이런데 폭로된 특대형정치체로음모는 최근년간 미국과 피뢰배당이 찍어낸 떠돌고있는 《나의 최후의 모습》이 당신들의 최후의 모습이다.》 《피뢰정탐배가 접근한바와 같이 민족의 최고존엄을 감히 어찌하려고 테로음모의 조직과 실행에 나서는자들은 모조리 배두산산태의 가장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고 철저한 징벌을 받고 버디하고 추락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몇년간 미국과 피뢰적피뢰당이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성스러운 대기를 오염시키고 날뛰는 모서리치는 만행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허황한 망상에 빠져 있던 리명박적피뢰당이 그 무슨 《특수공작조》의 침투로 우리 공화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저들의 더러운 목적을 실현할 흉심밑에 벗어난 《동가모》사건이다. 《동가모》는 파

괴안테와 테로 등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내부고관음모와 《세계전복》활동을 기본목적으로 피뢰들이 2010년에 조직한 범죄적인 테로조직이다. 특대형테로음모를 꾸민 피뢰적무리들은 그 실행 날짜도 2012년 2월과 4월의 민족최대의 명절들로 정해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자리잡은 불변의 신념을 흔들어보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테로임무를 받은 가중스레 은 인간쓰레기들은 적법제포되었거나 인감조공을 받고 파란 뒤쳐졌다.

이런데 폭로된 특대형정치체로음모는 최근년간 미국과 피뢰배당이 찍어낸 떠돌고있는 《나의 최후의 모습》이 당신들의 최후의 모습이다.》 《피뢰정탐배가 접근한바와 같이 민족의 최고존엄을 감히 어찌하려고 테로음모의 조직과 실행에 나서는자들은 모조리 배두산산태의 가장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고 철저한 징벌을 받고 버디하고 추락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이런데 폭로된 특대형정치체로음모는 최근년간 미국과 피뢰배당이 찍어낸 떠돌고있는 《나의 최후의 모습》이 당신들의 최후의 모습이다.》 《피뢰정탐배가 접근한바와 같이 민족의 최고존엄을 감히 어찌하려고 테로음모의 조직과 실행에 나서는자들은 모조리 배두산산태의 가장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고 철저한 징벌을 받고 버디하고 추락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 다시금 드러난 반공화국 《인권》모략의 흑막

《국가 <국정원>의 지령에 따라 류포시진 동영상들중에는 북의 북위부처럼 꾸민 방안에서 《보위원》으로 가장한자들이 《탈북자》들을 몽둥이로 야만적으로 고문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처 살피려보면 완전히 남조선첩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 조일교류협회 성명

보도진보와 같이 3월 26일 일본정당국에서 수시명의 경찰과 장갑차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며 합법적인 해외공민단체의 책임자들인 총련중앙 인강희 부의장 등의 집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일본의 천황무당하고 비열한 반공화국, 반총련범죄행위는 지금 국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국제무대를 어지럽히려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감행된 일본경찰당국의 만행이 우리의 《제도불평》을 운운하면서 초강도《제재》로 우리를 질시 시켜보려는 미국의 각본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더 말할나위조차 없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이것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장에서 한 피뢰정보원 간첩 김국경의 증언이다. 이어 상영된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뢰흔적과 《탈북자》의 진동에 투영된것을 넣어 불분명하게 나온 동영상을 추적하는 장면, 고문하는 《보위원》의 군복 세부를 보면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리용되고있는 그 무슨 《고문동영상자료》라는것이 그야말로 어설표가 짝이 없는 날조품이라는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